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태희



니 최정상에 오른 다음에는 내려올 일밖에 없었던 것인가. 좀더 차분하고 분석적인 도요타신화의 혀와 실에 대한 백서가 기다려진다.

예술이다. 국가경영의 성패는 그 영향이 막대하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논란을 보면, 국가경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문이 든다. 숙려단행(熟慮斷行)의 자세가 쉽다는 얘기가. 갈등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간을 충분히 잡아야 한다.

5년의 대통령 임기동안 언제 숙려할 기간이 있느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숙려해야 한다. 국가경영을 하고자 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은 싱크탱크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조선시대에 대왕이던 집현전을 불임 만한 세종과 정조가 모두 각각 집현전과 규장각을 특별히 운영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요컨대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두뇌능력과 소용능력이 필수적이다.

이제, 3월 봄이다. 마침 성공한 스포츠 선수로 인해 기분이 좋다.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모두 성공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멋있는 경기였다. 인터넷 방송이라 전송에 미세한 머뭇거림이 있을 땐 실수가 나는 게 아닌가 조마조마했다. 김연아의 퍼포먼스는 완벽했다.

해서도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한 것이다.

밴쿠버 올림픽 경기는 끝났지만, 김연아의 성공 이야기는 여러 뒷얘기와 함께 계속될 것이다. 고모가 옆집에서 버러던 빨간 스카이트 신발을 갖다준 것이 시작이었다더라, 스카이트 신발은 일본에서 맞추어주어 줬더라 등등. 김연아가 성장하는 동안 각 단계별로 가르쳤던 코치들의 역할도 컸겠지만, 2007년부터 인연을 맺었던 세계적 수준의 코치들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결정적이었을 듯하다.

그때도 우리가 승리와 성공에 열광하는 것은 현실에서 그만큼 성공을 갈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무릇

성공 이야기는 즐겁다. 감동을 주고 에너지를 준다. 그런데 정상에 오른 스포츠 선수의 성공 이야기에 실패 이야기는 양념처럼 들어가 있다. 그래서 더욱 현실감 있고 극적인 이야기가 된다. 스포츠 선수에게 이기고 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다. 다행히 우리 사회가 스포츠에서의 승리와 패배에 좀 여유가 생긴 듯하다. 은메달, 동메달에 대해서도 축하를 아끼지 않고, 패자에 대

그간 성공사례로 두루 거론되던 도요타가 최근 리콜사태로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여러모로 당혹스럽다. 그동안의 찬사와 명성은 단지 홍보의 결과였던 말인가, 성공에 도취하여 과도한 일을 벌인 결과였던 말인가,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

겨냥다가 다시 들어가 성공한 얘기는 드라마틱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IT강국의 막강한 단말기 제조업체인 우리 삼성과 엘지에게 큰일이 아닌가 걱정된다. 그동안 성공에 안주하고 방심한 것은 아닐까. 곧 맞이하는 대환마가 나오겠지. 우리 형제가 일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로 경쟁하며 성공하길 모두가 간절히 바랄 것이다.

성공한 스포츠 선수 못지않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이다. 스포츠는 승자와 패자가 맞붙지만 정치의 영역은 그렇지 않다. 정치는 기업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면을 살펴보자. 서민생활이 어렵다고들 하나 그래도 우리 경제는 2009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휩싸여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하였던 유독 가장 먼저 회복기를 거쳐 세계 10위권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연일 밴쿠버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태극기의 승전보를 높이 휘날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추진 국처럼 부정선거, 금품선거의 악습을 털

라에서 원조를 하는 대외원조국으로 변한 위치가 정립될 수 있는가를 가능하는 것 대이기도 하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과정 이 때면 이렇듯 부정이 횡행해서야 어떻게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 기보다는 우리가 관행처럼 여겨왔던 이러한 행태를 시급히 청산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이에 전담경찰청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연고제 탈표방법의 하나로 향피제 실시, 담당지역 교체, 청장 직접보고제도 도입 등 선거과정에서 함정의 의혹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청장 이하 전 직원이 휴일도 반납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 모두가 '선거개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선거에 관해서는 선진국,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지역이 '선거 선진지역'이 되는 것을 이번 임자도의 교훈으로 배웠으면 한다.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

특별기고

한기민



최근 '신안군 임자면 농협장 급품 선거' 관련 뉴스가 연일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2008년 경북 청도의 군수선거가 불법선거로 인해 2005년부터 4번 연속 선거가 치러진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후 청도는 확실히 변했으며, 주민들이 '부정선거는 죄가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했다고 한다.

한다. 당초 4월에 실시된 조합장선거에 당선된 모씨가 업무수행중 반대편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로 수사착수 즉시 사표를 내는 것을 본 필자는 낙선된 사람도 부정이 있

었을 것 같으니 철저한 재수사를 요망했다. 수사 결과 예상했던 대로 반대편 역시 부정선거를 한 사례가 드러나 당선자, 낙선자 모두를 입건 송치한 경우를 보았다.

부정선거가 이렇듯 난무하는 것은 선거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조합장 선거에서부터 출마자나 투표자인 주민들이 관행처럼 돈 선거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는 것

을 것 같으니 철저한 재수사를 요망했다. 수사 결과 예상했던 대로 반대편 역시 부정선거를 한 사례가 드러나 당선자, 낙선자 모두를 입건 송치한 경우를 보았다.

부정선거가 이렇듯 난무하는 것은 선거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조합장 선거에서부터 출마자나 투표자인 주민들이 관행처럼 돈 선거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는 것

돈선거, 이젠 확실히 끝자

기고

허영철



전남도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고 우리 해남군 역시 재정자립도가 12%로서 전남도 22개 시·군중에서 하위권으로, 지역개발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고예산 확보가 어는 자치단체보다 더욱 절실하다.

시와 화원 관광 단지 등이 조성되는 경제 요충지로서 전남 서남부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 진흥, 더불어 사는 생산복지 구현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 붓고 있으며 특

군수가 다시 중앙정부를 방문해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이 참석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초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타지역에 비해 사회간접 자본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우리 지역에 맞는 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는 해남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국고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국고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세정부가 들어서면서 호남의 민심은 여러모로 편하지 않다. 주요 정책과 중앙 인사에서 자꾸만 소외되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서 남해안특별별, 5+2 광역경제권사업, 녹색뉴딜사업, 신발전지역서남권종합발전계획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종합 분석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도 낙후지역에 국가 재원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출장민,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해남부군수〉

국고예산 확보 전략을 만들자

1970년대 이후 전국인구는 58%가 증가하였는데 우리 군의 인구는 50%가 감소하는 등 인구유출의 심화로 지역발전 잠재력이 약화되었다. 1차 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4배가 높아서 취약한 산업구조로 군민의 소득기반이 매우 열악한 것은 물론 각종 사회간접 시설이 부족해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반적인 지역발전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세계적인 문화유산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농산물과 해양자원이 풍부해 관광산업과 해양산업 부문에서 비교 우위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내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 요충지이자 기능성 웰빙 농산물의 주산지로서, 그리고 서남해안 관광벨트 기업도

를 위해 김충식 군수의 특별 지시로 2월 초부터 각 실·과장들이 모여 4~5차례 보고회를 열었으며, 특히 신규사업을 대폭 발굴하여 57건에 3천250억 원의 예산을 전남도에 요청해준 상태다. 우리 군에서는 1차로 해당 실·과장이 6월 15일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대상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2차로 김충식

조작했다가 꼬리가 꼬여 해임됐다. 해당 여교사는 아들을 애듯하게 여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 일이라고 변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공정과 신뢰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에까지 상피제 도입을 거론하도록 한 행위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치영 시회1부장 unipark@kwangju.co.kr

시설

가전매출 10조, 지역경제 견인차 기대한다

백색가전이 광주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출호조로 지역에 입주해 있는 백색가전업체들이 투자와 생산규모를 늘리면서 '가전매출 10조원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가전 수출액이 3조원을 넘어선 삼성광주전자는 올 들어서도 냉장고와 에어컨 등 생산라인을 늘렸음이 가뭄하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도 올 들어 연말부터 가전에 들어간다. 대우일렉의 연말부터 가전에 들어간다. 대우일렉의 연말부터 가전에 들어간다. 대우일렉의 연말부터 가전에 들어간다.

다행히 광주는 지식경제부가 공모한 '가전 로봇 특화육성사업'에 선정돼 2013년까지 국비 300억원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타 시·도 역시 가전 로봇산업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초기 신기술개발과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대학은 물론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해 생산시설 및 연구기반 구축과 인력 양성 등을 서둘러야 한다.

광주천 교량 경관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요즘에는 교량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 상징물이나 조형물들을 많이 설치한다. 미미한 교량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상징물과 조명을 이용한 조형물들은 교량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거나 명소로서 거듭나게 한다. 교량의 경관 개선사업은 디자인에 있어 지역의 상징성과 예술성이 가미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광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천 21개 교량 경관개선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업 단계별로 디자인 개념이 상이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니 말이다. 또 일부 교량의 경우 지나치게 큰 조형물이 설치되고 있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고 주변 경관과 부조화마저 초래하고 있다.

2008년 8월 완공된 1단계 사업은 남광교 등 5개 교량이 조형물 위주로 단장

되고, 원색 LED 조명을 과다하게 설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2·3단계에서는 조형물 설치 및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변경됐다. 결국 광주시는 2·3단계 광주천 교량 경관개선사업의 개념을 전면 변경한 셈이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2·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16개 교량 중 광주천의 상징적인 원지교와 광천2교에 수역원에 이르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은 '그 상징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광주천은 교량의 길이가 50~100m에 불과해 화려한 조형물 위주보다는 도심과 녹지를 연계하는 수준의 디자인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비록 2·3단계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1단계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無等鼓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은 사정기관 직원들의 연고지 근무 관행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사정기관 인사들이 고향으로 내려가 1년 정도 근무해서는 지역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이른바 '토착비리'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사정기관 관계자들의 고향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鄕避)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로 받아 들여졌다.

상피제 적용을 받았던 직책은 나라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기강을 바로잡고 왕에게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자리였다. 점에서 조금이라도 정실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피제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가 한 곳 없었다. 최근 광주의

상피(相避)



우리 역사에서 향피제를 비롯해 취지를 같이하는 상피(相避) 제도의 연원은 매우 길다. 통일신라시대 원성왕 손자인 김경정이 현덕왕 때 최고의 벼슬인 상대등(上大等)이 되었을 때 시중(侍中) 벼슬에 있던 그의 아들 우정은 사임했다. 혈육끼리 같은 관서에서 일할 수 없다는 상피제에 따른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 관원과 인사담당 관원, 조선시대에는 승정원의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부승지 등도 상피제에 해당됐다.

자신 아들의 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교육계에 서 교사가 근무 중인 학교에 본인 자녀 배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의 여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빼들려

조작했다가 꼬리가 꼬여 해임됐다. 해당 여교사는 아들을 애듯하게 여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 일이라고 변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공정과 신뢰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에까지 상피제 도입을 거론하도록 한 행위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치영 시회1부장 unipark@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